

구성	주요내용
NHI News(12)	☐ 국가인재원, 국가과학기술인력원과 업무협약 체결(4월) - 5급 공채 기술직 대상 과학기술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교류
	☐ 민간경력 신임사무관, 대한민국 정책 현장 속으로(4월) -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수료, 22일부터 22개 부처에서 업무 시작
	☐ 몽골 공무원 인사행정 역량 강화 연수(4월) - 인사관리 제도 및 인공지능 활용 방안 등 공유
	☐ 민·관 교육 훈련기관, 미래 인재개발 방향 모색(4월) - '제75회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개최, 각 기관 우수교육 과정 등 공유
	☐ 정보화를 통한 한국의 정부혁신, 우즈베키스탄에 이어나가다(4월) - 국가인재원 우즈베키스탄 정부 고위급 정보화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예비사무관 311명 양성, 공직 첫 교육 시작(5월) -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입교식 개최, 현충원 참배 후 17주간 교육
	☐ 말레이시아 공무원, 4차산업 대응위해 방한(5월) - 오는 31일까지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현장 견학 등 연수
	☐ “국가인재원, 카자흐스탄과 중앙아 지역 공무원 교육 사업 발굴키로”(5월) - 김채환 국가인재원장 카자흐 국가행정아카데미와 공공분야 인적자원개발 고도화 합의
	☐ 잘쓰겠습니다. 국가인재원, 우즈베크에 인공지능 활용 정책업무 비법 전수(5월) - 김채환 국가인재원장 우즈베크 국가행정아카데미와 공공분야 인적자원개발 협력 고도화 합의
	☐ 국가인재원 온라인 명사특강(TOD_Top of Dreams)(6월)
NHI Plus ⁺ (1)	☐ ‘국토사랑’ 가슴에 새겨.. 5급 공채 예비 사무관 311명 전국 국립공원에서 봉사활동 실시(6월) - 전국 6개 국립공원에서 자원보전 · 환경정화 활동 진행
	☐ 한국 인사행정 경험, 14개국 공무원 유학생에 공유(6월) - 서울대 행정대학원 외국공무원 유학생, 인사관리 · 인재개발 분야 1일 프로그램 참여
기 타(1)	☐ (퀴즈 이벤트) 웹진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퀴즈 구성(6월)

국가인재원, 국가과학기술인력원과 업무협약 체결

— 5급 공채 기술직 대상 과학기술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교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 이하 국가인재원)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배태민, 이하 과학기술인력원)과 18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과학기술분야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과 운영, 온라인 콘텐츠 상호 활용, 국가발전을 위한 양 기관 핵심사업 연계 등에 협력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국가인재원은 5급 공채 신입관리자과정(311명, 5월 13일 입교 예정) 교육생 중 기술직렬(약 100명)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한다.

기술직 예비사무관들은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우주산업, 사이버보안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강의를 통해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책기획 역량을 함양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약은 국가인재원의 공무원 양성 비법(노하우)과 과학기술인력원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융합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관료 육성에 동방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협약식에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집중투자와 인력양성은 국가발전의 근간”이라며, “신입관리자과정 교육생들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각별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태민 과학기술인력원장은 “후배 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할 수 있어 보람있다.”라며, “과학기술인력원의 우수한 교수진과 최신 과학기술지식을 제공할 것이다.”고 전했다.



<업무협약 기념사진(4.18.)>



<업무협약 서명 현장사진(4.18.)>

민간경력 신임사무관, 대한민국 정책 현장 속으로

—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수료, 22일부터 22개 부처에서 업무 시작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이하 '국가인재원')은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수료식을 진천 본원에서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시험'에 합격한 54명의 신임사무관들은 국가인재원에서 진행하는 9주간의 신임관리자과정을 마치고, 오는 22일부터 22개 부처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신임관리자과정은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신임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 정책기획 역량,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대전 현충원 참배와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여 국가와 공직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소백산 국립공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국토사랑의 마음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도 굳건히 하였다.

한편 민간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활용도가 높은 실습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지역문화 진흥 정책은 정책담당자의 현장 중심의 설명으로, 동물 복지정책은 정책전문가의 정책보고서 개별지도를 통해 정책기획 역량을 키움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직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법제처 법제관의 법령안 심사, 기재부 예산담당자의 예산안 편성, 현직 판사의 민법 강의 등 법제와 예산관련 교과목은 현직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출강하여 현장감과 몰입도를 높였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계활용 교육 등 정책 입안과 실행을 위해 필요한 최신 디지털 기술 및 근거기반 정책결정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환경부에서 근무하게 될 옥예슬 사무관은 "민간에서의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국가인재원에서의 배운 공직관 및 직무스킬을 결합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배치될 한주석 사무관은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과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임하며 의료인으로서 전문 경험을 활용하여 국민복지를 위해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에서 "교육을 통해 새긴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에 대한 헌신 등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직가치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달라"며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수료식 수료사
현장사진(4.19.)>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수료식
현장사진(4.19.)>

몽골 공무원 인사행정 역량 강화 연수

— 인사관리 제도 및 인공지능 활용 방안 등 공유 —

몽골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행정 전문지식과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오는 29일까지 몽골 정부 각 부처 인사행정 담당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몽골 공무원 인사행정 역량강화 과정'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5회에 걸쳐 진행 예정인 협력 교육과정 중 2차 연수로 성과에 입각한 몽골 인사행정 체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과정에서 국가인재원은 한국 공무원 인사행정 발전 전략을 비롯해 성과관리 및 보상, 임용제도, 통합채용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 인사 정책 및 제도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적 혁신이 공공 서비스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몽골 측 제안을 반영해 인공지능(AI) 복무 관리, 디지털 활용 미래 예측 및 정책 적용 등 맞춤형 강의 또한 제공할 계획이다.

강의에는 최근 국가인재원에서 제작한 '인공지능 정책 활용 안내서'를 소개해 공직사회의 효율적 정책업무 추진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적절한 사례를 교육생들에게 제시할 방침이다.

박지숙 국가인재원 글로벌교육과장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인사관리 제도 및 비결을 공유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연수가 몽골 정부의 인사행정 혁신 및 공무원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은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과의 협력하에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채용, 역량평가, 균형인사, 고위공무원단, 연금, 징계 등 한국 정부 인사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 지식 공유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은 인사혁신처와 함께 인사행정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몽골 정부에 한국 정부 인사행정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민·관 교육 훈련기관, 미래 인재개발 방향 모색

— 제75회 민·관 교육발전협의회'개최, 각 기관 우수교육 과정 등 · 공유 —

민·관 교육훈련기관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HRD) 분야가 추구해야 할 인재개발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25일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국내 민·관 교육훈련기관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5회 민·관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회원기관 가입 승인 및 우수 교육과정 사례 공유, 전문가와 함께하는 인적자원개발 이야기공연(HRD 토크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사례는 지난 2년간 공공인적자원개발 대회(공공HRD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전 인재개발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각각 '기록(Recording) 시대와 태블릿클래스', '상황-투입-과정-산출(CIPP) 평가모형을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과정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카이스트(KAIST) 이경상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융합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 교육훈련 기관은 현안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재 개발 분야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인적자원개발 분야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유익한 교류의 장이 됐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류·협력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혁신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 교육발전협의회는 국가인재원 주관으로 지난 1988년 11월에 발족했다.

현재 112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교육훈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 등을 통해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로 활동하고 있다.



<제75회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개회사 사진(4.25.)>



<제75회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현장사진(4.25.)>

정보화를 통한 한국의 정부혁신, 우즈베키스탄에 이어지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우즈베키스탄 정부 고위급 정보화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 이하 '국가인재원')은 우즈베키스탄 고위급 공무원*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자정부 역량강화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 디지털기술부 제1차관 외 각급 기관의 정보화 담당 국·과장급 공무원

금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우즈베키스탄 인사개발청이 국가인재원에 한국의 정보화를 통한 정부혁신 경험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개설되었다.

※ 국가인재원과 우즈베키스탄 인사개발청은 2023년 11월 '인적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번 연수 과정은 △정보화를 통한 한국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혁신 사례에 관한 강의와 토론회 및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활용 현장 견학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수요에 맞게 구성되었다.

특히, 정책관리 토론회(워크숍)를 통해 정보화 추진 정책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참가자들이 귀국 후 연수 내용을 현업에 직접 적용하고 적극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수에 참가한 페코스 알렉(Pekos Oleg) 우즈베키스탄 정보화기술부 제1차관은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20년 87위였던 유엔(UN) 전자정부 순위가 2022년 69위로 크게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면서, "그간 지속되어 온 한국과의 전자정부 분야 협력이 이번 방한 연수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채환 국가인재원 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이번 연수가 각자 담당 분야에서 국민을 위한 정보화 노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한다."면서, "수료생 모두가 앞으로 한-우즈베키스탄 간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국가인재원은 우즈베키스탄 국가행정아카데미 및 인사개발청과 각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인사담당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공무원 채용제도와 역량평가 분야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특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인재원은 우즈베키스탄 국가행정아카데미를 대상으로 공공분야 인적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공유하였다.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공공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우즈베크 고위공무원 교육 수료 현장 사진(4.26.)>



<우즈베크 고위공무원 교육 수료 단체 사진(4.26.)>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입교

— 예비사무관 311명 양성, 공직 첫 교육 시작 —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행동하는 정부를 만들어갈 예비사무관 교육이 시작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 이하 '국가인재원')은 13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311명의 예비사무관을 대상으로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입교식을 개최했다.

입교식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오는 9월 6일까지 17주간 진행되는 이번 신임관리자과정은 ▲ 국정 비전과 공직가치 내재화 ▲ 직무·정책기획 역량 배양 ▲ 중간관리자 지도력(리더십) 향상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올바른 국가관과 공직관 정립을 위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와 헌법 가치에 기반한 공직 가치 심화 교과를 진행한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정책기획 프로그램을 신설해 정책 과정 전반의 종합적인 학습과 정책단계별로 요구되는 핵심 직무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중간관리자로서 조직관리 및 소통역량을 위해 선배와의 대화, 관리자 역량실습 등의 교육도 진행된다.

특히, 새롭게 개편된 과학기술인력개발원(기술직),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역직) 등과 협력한 직렬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국토 사랑을 위한 국립공원 환경정화 봉사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이 필요하다"며 "공직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우수한 신임사무관을 양성하겠다"며 "예비사무관들이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으로 '책임있는 국가관, 올바른 역사관, 명확한 안보관'을 함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의 기념촬영(5.13.)>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사(5.13.)>

말레이시아 공무원, 4차산업 대응위해 방한

— 5월 31일까지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 현장 견학 등 연수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전략을 배우기 위해 말레이시아 공무원이 한국을 찾았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오는 31일까지 2주간 말레이시아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방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이다.

연수단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의와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 등 사전학습을 진행했다.

교육은 ▲농업 ▲에너지·환경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심 분야를 담당하는 한국 공무원과의 만남 및 현장 견학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정책추진사례를 접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지자체 및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견학을 통해 한국의 지방행정 및 전자정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지숙 글로벌교육과장은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은 40년 넘게 이어져 온 국가인재원의 대표 교육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말레이시아 측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재원은 지난 1984년 말레이시아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최초로 개설한 후, 현재까지 총 1,80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2012년 자체적으로 동창회를 조직해 양국의 우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교육생 단체사진(5.2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카자흐스탄 방문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카자흐 국가행정아카데미와
공공분야 인적자원개발 고도화 합의 —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원장은 5.20.~21.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국가인재원이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정책활용안내서 증정식을 개최하고, 카자흐 국가행정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총장, 카자흐 국제개발협력위원회(KazAid) 위원장,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ACSH)위원장과 면담을 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 정책활용 영문안내서 증정식에는 카자흐 국가행정아카데미 총장, 부총장 및 공공 인사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국가인재원이 공직사회의 효율적 정책 추진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위한 인공지능 정책활용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다.”면서, “카자흐 공직자들도 본 안내서를 활용하여 정책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은 공직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 정책단계별 실습과제, △10개 정책의제별 샘플 보고서 등을 수록한 ‘인공지능 정책 활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정부 부처와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함 (3.28)

김 원장과 엘란 아빌(Yelran Abil) 카자흐 아카데미* 총장은 면담에서 양국 인재개발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정부가 카자흐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1994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공무원 교육 전문기관으로, 공공행정, 정책 및 경제학 등 자국 정부 핵심인재 대상 석·박사 과정과 직무 연수 과정을 운영 / 국가인재원은 지난 2012년 카자흐 아카데미와 MOU 체결.

** 2025~26년간 국가인재원은 카자흐 아카데미 대상 ‘카자흐스탄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방안’ 관련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사업 추진 중

아리스타노프 아르켄(Arystanov Arken) KazAid*위원장과 진행한 면담에서 양측은 중앙아 및 코카서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디지털전환, 4차 산업혁명 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14년 카자흐 정부의 개발원조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카자흐 외교부 산하기관 / 한국국제협력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원조기구와 협력하여 중앙아와 코카서스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조사업 수행 중

이어 김 원장은 알리한 바이메노프 (Alikhan Baimenov) 아스타나인사행정허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오는 9월초 국가인재원이 개최할 예정인 글로벌 공공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위원장을 초청하였으며, 바이메노프 위원장은 동 허브가 6월경 개최할 예정인 인사행정 컨퍼런스에 인재원 인사를 초청하였다.

* 2013년 카자흐 정부가 유엔개발계획(UNDP)가 공동설립한 공공·인사 행정 다자협력 협의체로 42개국이 참여 / 역내 국가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세미나, 학술지 발간 및 공동연구 등을 수행 중

카자흐는 중앙아 지역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전략적 동반자로, 국가인재원은 금번 원장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공공분야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고도화하고, 향후 지역 내 공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방문 단체사진(5.21.)>



<카자흐스탄에 인공지능 정책활용서 전달(5.2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우즈베키스탄 방문

— 국가인재원장, 우즈베크 국가행정아카데미와 공공분야 인적
자원개발 협력 고도화 합의 및 인공지능 활용 비법 전수 —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원장은 5.22.~24.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국가인재원이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정책활용안내서 증정식을 개최하고, 우즈베크 국가행정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총장, 인사개발청(ARGOS) 청장대행, 디지털기술부(MODT) 장관을 면담하였으며, 국가인재원 우즈베크 과정 수료생과 간담회를 가졌다.

생성형 인공지능 정책활용 영문안내서 증정식에는 우즈베크 국가행정아카데미 총장 및 인사개발청 청장 대행, 내무부 전문교육원장, 인하대학교 타슈켄트 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김 원장은 증정식에서 “국가인재원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공직사회의 효율적 정책 추진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위한 인공지능 정책활용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다.”면서, “우즈베크 공직자들도 본 안내서를 활용하여 정책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국가인재원은 증정식에 이어 우즈베크 아카데미 교직원, 디지털기술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내서 활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우즈베크도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체계적인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익혀 업무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국가인재원은 공직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 정책단계별 실습과제, △10개 정책의제별 샘플 보고서 등을 수록한 ‘인공지능 정책 활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정부 부처와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배포 (3.28)

김 원장은 베크무로도프 우즈베크 아카데미* 총장과의 면담에서, 공무원 교육훈련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우즈베크 인사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고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우즈베크 대상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양 기관이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1995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공무원 교육 전문기관으로, 공공행정, 정책 및 경제학 등 자국 정부 핵심인재 대상 석·박사 과정과 직무 연수 과정 운영 / 국가인재원은 지난 2014년 우즈베크 아카데미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7~2021년 국가인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 “우즈베크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우즈베크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강화사업”을 수행, 동 사업을 통해 우즈베크는 국가공무원법 제정, 인사개발청 개청, 역량평가센터 설립 등을 추진

김 원장은 무사예프 우즈베크 인사개발청* 청장 대행과 면담을 갖고, 인사개발청의 요청으로 그간 국가인재원에서 실시한 우즈베크 공무원 방한 연수**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양측은 향후 우즈베크 공무원 방한 연수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19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공무원 인사행정기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도, 공무원 채용, 보수 및 인사관리 등 운영 / 국가인재원은 지난 2023년 우즈베크 인사개발청과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우즈베크 정부 인사 담당 국장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역량평가센터 운영 경험 공유 (2022~2023) / 우즈베크 정보화 담당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 정부 혁신 경험과 사례를 공유 (2024.4.)

아울러 쉘르마토프 디지털기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김 원장은 지난 4월 우즈베크 대통령 요청으로 국가인재원이 운영한 우즈베크 고위급 디지털 정부혁신 연수 과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즈베크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등 분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앞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국가인재원은 김 원장의 우즈베크 방문 계기, 지난 3년간 국가인재원에서 연수한 우즈베크 정부 고위공무원 수료생들을 초청하여 그간의 성과 및 한국 연수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김 원장은 수료생들에게 한-우즈베크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가인재원 우즈베크 공무원 방한연수 실적 *

과정명	시기	대상
우즈베크 공무원 글로벌 리더십과정	2015.4.27.~10.9	정보통신부 중견 간부 및 타슈켄트 정보통신 대학 교수 등 총 13명
우즈베크 인적자원개발 분야 공무원 역량강화과정	2022.11.15.~11.19	정부 11개 부처(기관) 인적자원개발 분야담당 국·과장급 공무원 11명
우즈베크 인적자원개발 분야 공무원 역량강화과정	2023.12.20.~12.22	인사개발청 및 국가행정아카데미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 14명
우즈베크 정부 고위급 공무원연수	2024.4.21.~4.28	디지털기술부 제1차관 등 14개 기관 정보화 담당 고위공무원 16명

국가인재원은 한-우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개발 분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방문 단체사진(5.23.)>



<우즈베키스탄 방문 기념품 전달(5.23.)>

국가인재원 온라인 명사특강(TOD^{Top of Dreams})

— 미래 환경변화 및 최신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반영한 온라인 명사 특강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미래 환경변화 및 최신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반영한 인문소양·디지털·AI 등 시의성 높은 주제 중심의 교육 확대·강화 필요에 의해 직장교육·평생교육 등 상시적 일터 학습 지원 및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한 공무원·국민 대상의 대중적 TED*형 공개강좌를 개발하였다.

* TED: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여 영감을 주는 짧은 형식의 강연

기존 온통 Live 국정과제와는 차별화된 인문·교양 중심의 미래 환경변화 및 최신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특별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에서 만나기 어려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빙한다.

주제별 명사 특강 중심의 매월 1회 운영(회당, 2~3편)하며 유튜브·나라배움터 이러닝 콘텐츠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디지털·AI/챗GPT, 리더십·소통·조직문화, 뇌인지·심리학, 문화·예술 등



<TOD 특강(4.30.)>



<TOD 특강(5.30.)>

‘국토사랑’ 가슴에 새겨.. 5급 공채 예비 사무관 311명 전국 국립공원에서 봉사활동 실시

—— 전국 6개 국립공원에서 자원보전 · 환경정화 활동 진행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 이하 ‘국가인재원’)은 지난 5월 13일 입교한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공개경쟁채용) 311명의 예비 사무관들이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6개 국립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임 사무관들이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토에 대한 사랑 등 공직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행동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려는 국가인재원의 교육목표가 반영되었다.

예비 사무관들은 2박 3일동안 6개 국립공원(지리산, 설악산, 무등산, 내장산, 가야산, 북한산)에서 외래식물 제거, 자생식물 식재와 같은 자원보전활동과 오일스테인 작업, 쓰레기 수거 등 시설관리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국립공원 탐방로 해설 및 환경보호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국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예비 사무관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체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하여 우리 교육생들이 자연환경 보호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봉사활동(6.5.)>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봉사활동(6.5.)>

한국 인사행정 경험, 14개국 공무원 유학생에 공유

—서울대 행정대학원 외국공무원 유학생, 인사관리·인재개발 분야 1일 프로그램 참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몽골 등 각국 공무원 유학생들에게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18일 세종 정부2청사 인사혁신처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글로벌) 행정전공 과정 14개국 24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공 인사행정·인적자원개발 분야 1일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유학생들은 각국 주요 부처 소속 공직자들로, 대부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석사 과정 중이다.

이날 행사는 ▲인사혁신처와 국가인재원의 기능 및 역할 소개, ▲성과관리, 디지털 인사복무관리 등 담당 공무원들과의 대화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정부전시체험관, 세종시청 등 관계부처 및 기관 방문을 통해 전자정부를 비롯한 한국의 혁신적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과 인재원이 가지고 있는 공직인재양성의 노하우를 다른 국가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한국에서 유학 중인 각국 공무원들이 양국 관계 발전과 우의 증진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은 한국 정부의 혁신적 인사관리·인재 개발 제도 및 경험에 대한 공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4개국 외국공무원 유학생 인사혁신처를 방문 기념사진(6.18.)>

한낮 최고 기온 35℃의 무더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

—— 올해 더욱 상쾌한 여름을 맞이하는 건강 관리 비결 ——



“앞으로 여름은 더 더워진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연구소에서 발표한 기상 전망이다. 이러한 예측을 증명하듯 올해 6월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은 무려 35℃를 기록했다. 따라서 무더위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건강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바캉스 앞두고 운동 시작?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 악화



날이 더워지면 야외 활동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마련이다. 수영, 서핑, 래프팅 등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또, 바캉스 앞두고 옷맵시를 위한 다이어트 차원에서 운동하는 젊은 세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낮 12시~오후 3시 사이의 외출은 삼가도록 하자. 특히 이때 하는 운동은 체온 상승과 수분 손실로 인해 오히려 건강이 악화할 수 있기에 평소보다 강도를 10~20% 가량 조절해야 한다. 되도록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거나 실내 홈 트레이닝으로 대체하길 추천한다.

자외선 차단은 피부 상태에 따라 올바르게



여름엔 햇빛 차단 역시 중요하다. 외부에 머무르는 동안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손상과 안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따라서 얼굴, 팔다리 등 노출 부위에 반드시 선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어야 한다. 간혹 사용 시 각종 자극이 있어서 꺼려진다면 제품을 가려서 써 보자. 눈 점막이 따끔하거나 시릴 때는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나 레티놀이 원인인 만큼, 해당 성분이 없는 무기자차로 바꾸면 나아진다. 또, 지성피부의 여드름은 오일프리 자외선 차단제로 예방 가능하다. 다만 심한 염증과 같이 선크림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억지로 바를 필요는 없다. 모자나 양산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 물론 눈 보호를 위해 선글라스는 상시 지참하자.

상한 음식과 음료는 아까워도 ‘안녕’



일반적으로 기온과 감염병 위험은 동시에 올라간다. 무더위엔 물과 음식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특히 면역력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세균 감염이 식중독뿐 아니라 이질, 비브리오 패혈증 등의 질환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는 모든 조리 기구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당부하면서 냉장고 안에서도 균이 증식하니 보관기간이 지난 음식은 버리라고 조언한다. 의외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위생 포인트는 얼음이다. 날이 덥다 보니 차가운 음료를 찾는 빈도가 높아지는데 깨끗한 얼음이어도 맨손으로 집으면 세균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집게로 옮겨 담는다. 참고로, 복통이나 설사가 일어났을 때는 이온 음료를 물에 섞어 마시며 전해질을 보충해야 한다.

설레는 해외여행에 앞서 풍토병 예방은 필수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면서 최근 여름휴가를 해외로 떠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설레는 기분으로 외국 여행을 준비하는 대다수가 간과하는 사항이 있으니, 바로 풍토병이다. 한국보다 더 더운 열대지역 등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병이 유행할 수 있기에 미리 알아보고 백신이나 예방약으로 대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는 말라리아, Dengue, 황열, A형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등이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ma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낮 기온 35도까지 올라간다…이번주 내내 무더위”, 2024.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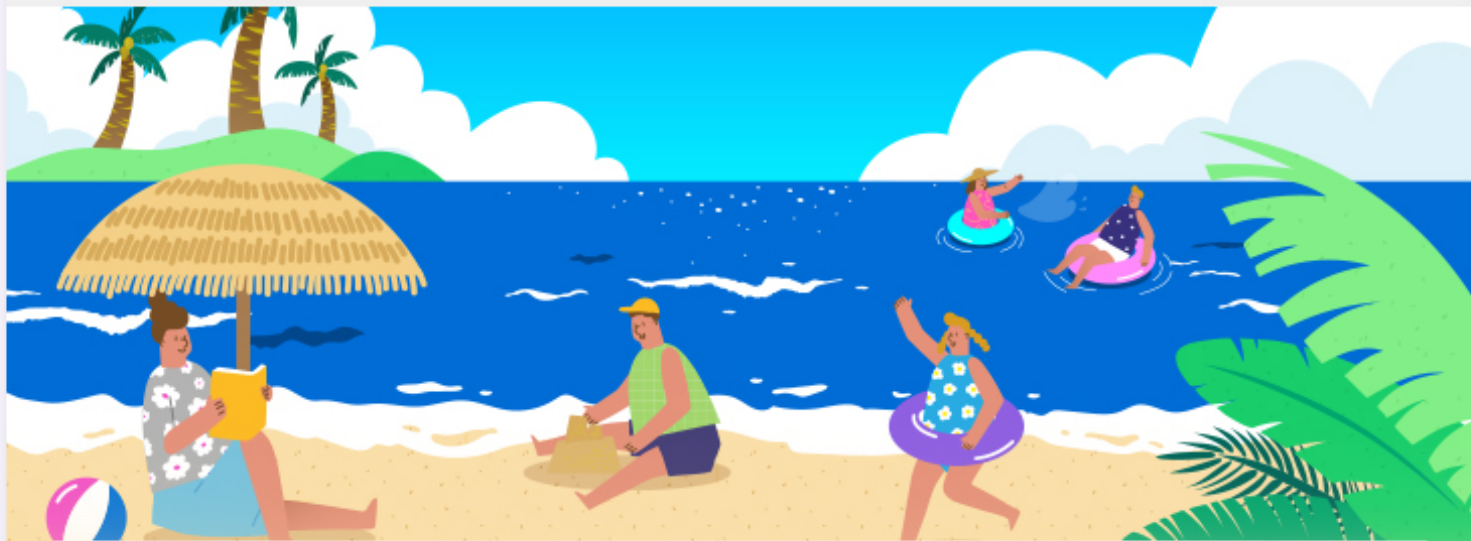
조선, “작년에 쓰다 남은 선크림 사용해도 될까? ‘이렇게’ 변했다면 당장 버려야”, 2024.05.17

시사저널, “벌써 이렇게 더워?…여름철 건강 관리 원칙들”, 2023.06.14

고려대학교의료원,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무더위!! 여름철 건강 지키기

서울대학교병원, N 의학정보(풍토병 [endemic disease])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Quiz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미래 환경변화 및 최신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반영하고 직장교육·평생교육 등 상시적 일터학습 지원 및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한 공무원 · 국민 대상의 대중적 공개 강좌인 'TOD'를 개발했습니다. 인문·교양 중심의 디지털·AI/챗GPT, 리더십·소통·조직문화, 예술 등의 특별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에서 만나기 어려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빙하였습니다. 녹화한 특강은 유튜브·나라배움터 이러닝 콘텐츠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TOD'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hint: NHI NEWS를 참고하세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발행하는 <NHI 매거진>
대표 정책부터 행사, 이슈, HRD 소식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최신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정답을 맞힌 7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려요!

응답기간

2024. 07. 05(금) ~ 2024. 08. 14(수)

응답하기